

오순절 후 열한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11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2년 8월 21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446 장 “주 음성 외에는” (통일 500)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34 번 시편 81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출애굽기(Exodus) 12:37-51	양용일 집사
찬 양 Anthem	“하나님 나 부르실 때”	찬양대
설 교 Sermon	“라암셋을 떠나서 숙곳에 이르니” (From Rameses To Succoth)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449 장 “예수 따라가며” (통일 377)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보다는,

마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과 무관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매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후 7:10, 약 1:22)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숙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육십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개역개정 **출12:37-38**)

“The Israelites journeyed from Rameses to Succoth. There were about six hundred thousand men on foot, besides women and children. Many other people went up with them, as well as large droves of livestock, both flocks and herds.” (NIV **Exodus 12:37-38**)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8/21 (주일)	8/22 (월)	8/23 (화)	8/24 (수)	8/25 (목)	8/26 (금)	8/27 (토)
	삼상13	삼상14	삼상15	삼상16	삼상17	삼상18	삼상19
본문	롬11	롬12	롬13	롬14	롬15	롬16	고전1
	렘50	렘51	렘52	애1	애2	애3	애4
	시28,29	시30	시31	시32	시33	시34	시35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8/24수 오후7:30)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딤후1:10-16)
토요 새벽기도회 (8/27토 오전6:30)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시92:1-15)

지난 주일(8/14) 말씀 –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13)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출 12:15-28)

유월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Remove the yeast from your houses)”(출12:15)고 명하셨습니다. 즉, 묵은 누룩을 (그대로) 남겨 놓는 상태로, 제대로 된 유월절을 시작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누룩’에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천국(하나님의 나라)은 마치 누룩과 같다(마 13:33)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시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누룩’은 ‘죄악’과 ‘죄의 파급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전5:6-7)고 권면한 것입니다. 한 마디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누룩이 들어가면, 그 본질은 바뀔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또 한 어떠한 누룩들을 경계하고 제거해야 하겠습니까? 1)첫째는 거짓과 위선, 정직하지 못한 외식으로 대표되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제거해야 하고(눅12:1-3), 2) 둘째는 권모술수와 간교함으로 대표되는 헤롯의 누룩을 제거해야 하며(막8:15), 3)셋째는 자의적 판단과 독단에 근거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대표되는 사두개인의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마16:11-12). 그래야만, 우리는 누룩 없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안에 묵은 누룩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이제는 이러한 누룩들을 다 제하여,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